

드림꽃편지 650

2023.3.21. 춘분

<https://cyw.pe.kr>

누구의 확신이 진짜인가?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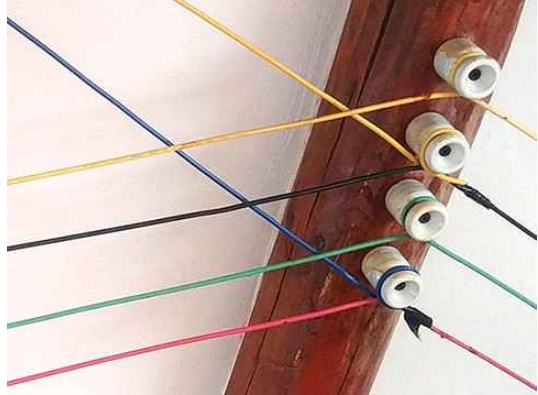
아그립바 왕 앞에 잡혀간 바울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행26:8)하면서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팡팡 칩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발한 자들 역시 가슴을 치면서 “왜? 왜? 분명 저 사람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인데 왜? 왜?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지?”

바울을 고발한 자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 편이었다가 갑자기 반대파가 된 바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발하는 자들도 고발당하는 자도 모두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따라서 지금 서로 이해가 안 되어 가슴을 팡팡 치는 것입니다.

바울로 말하자면 유대 명문가에서 태어나 당대의 저명한 율법학자들로부터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자기 확신’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과 확신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새로운 확신에 사로잡혀서 반대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노력이나 의지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확신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바울을 고발한 자들의 확신이 진짜인가요? 만약 어느 쪽이든 타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상대를 죽이거나 괴롭힌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만약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반대파에게 희생당하거나 괴롭힘을 받는다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도 평생 누구를 때리거나 미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미움을 받다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최용우 올립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제자가 스승을 믿는다면
스승의 말씀을 그대로 따름이 마땅한 일이다.
스승이 비록 납득되지 않는 명령을 내린다 해도
이의(異義)없이 복종하는 게 제자의 도리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요 제자일진대
적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무슨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 일이다.
그뿐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니 너, 잡아가

경비로 일하는 아파트 안에 생선을 파는 차가 들어와 확산기를 크게 틀고 장사를 합니다.

“영광에서만 나는 굴비 한 꾸러미에 만원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잡은 살이 통통한 우럭 한 마리에 이천원입니다.”

장마와 태풍,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이 때에 이렇게 가격이 짠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저렴하기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한 꾸러미씩 샀습니다.

이때 한 분의 아주머니가 생선을 고르다가 말합니다.

“이거 다 중국산 조기야.”

이 말을 듣고 생선 차 주인은 생선을 팔다가 20분 만에 줄행랑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중국산이라고 말을 하여도 워낙 저렴하기에 많이 살 텐데 신고할까 두려워 그랬나 싶습니다.

경비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고장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장난하느라고 비상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로 달려가서 어린아이를 붙잡고 말을 합니다

“너 이거 누르면 경찰 아저씨가 와서 너 잡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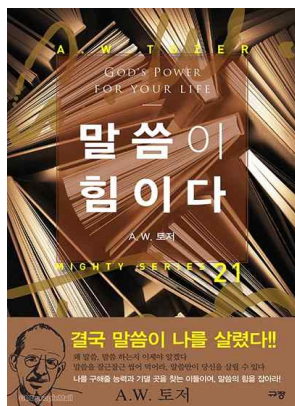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말씀이 힘이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21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328쪽 14,400원 규장 2015

왜, 결국 말씀이 나를 살렸다!!
왜 말씀, 말씀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 먹어라,
말씀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
능력과 기쁨 곳을 찾는 이들이여,
말씀의 힘을 잡아라!

1.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 주님의 책, 하나님의 선한 말씀, 거룩한 글, 주님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 숨을 불어 넣으신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며, 불멸의 말씀이자 영원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은 세상의 어떤 책과도 다를 뿐 아니라 그 위에 있습니다. 성경은 타협하지 않으며, 권위가 있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고의 권위를 행사하십니다.

3. 성경과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인쇄된 글을 통해 그분의 주권적 권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인쇄된 글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그분의 말씀은 살아 있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입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집니다.

4. 두려움과 소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인 동시에 소망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믿음과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말씀은

생명을 주고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먹이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그 말씀을 막거나 무시하거나 부인하면 그 말씀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5. 전통이라는 가짜 권위

사람들은 전통에 근거해서 믿음과 생활을 반복합니다. 전통은 그 나름대로 오랜 세월이 걸쳐 형성된 것이지만 오랜 세월 지켜온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고수하는 전통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는지 질문을 하고 지금도 그 전통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따져야 합니다.

6. 숫자라는 거짓 권위

교회, 특히 복음주의 교회에 침투한 거짓 권위는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조직체의 규모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직이 클수록 더 많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다수의 결정이 옳지 않았던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숫자’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과 권위를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7.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쓰레기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주의 쓰레기는 모두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시궁창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이곳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근본주의에 빠진 복음주의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떠나 어딘가로 가는 현실 도피적인 요소만 전하고 있습니다.

8.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존재가 다른 모든 존재와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각각의 존재는 다른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죄’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질서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주가 깨끗이 정화될 날이 옵니다.

9. 그 무엇

종교적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종교적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것은 성령께서 사람의 영 안에 심어주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신생(新生), 중생, 거듭남, 회심 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10. 성경의 권위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업적은 성경의 권위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전통이나 해석, 가톨릭 사제나 개신교 목회자의 권위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초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권위보다 가장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11. 성경에 대하여

설교단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 몰락한 설교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걸려드는 덫은 ‘성경’을 전하지 않고 ‘성경에 대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실제로 먹지는 않으면서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 아무리 탁월하게 설교해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12. 요란한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요란하고 시끄럽기만 할 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설교자까지도 설교자의 지적 유희에 불과할 뿐, 그 설교가 하찮은 것들에게만 관심을 쏟게 만드는 ‘수박 겉핥기식’의 소리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13. 영적 어두움

시각장애인은 그 눈 안에 어두움이 있어서 아무리 ‘빛’에 대해 설명을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환한 햇볕이 비추는 대낮에도 시각장애인은 그 빛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요 1:9)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시각장애라면 절대로 그 빛을 알 수 없습니다.

14. 영적인 소경

사람들의 영적 어두움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증오와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눈에 탐욕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밖에 보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 ‘이생의 자랑’(요2:16)이라고 부르는 교만에 빠진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 모두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15. 내적 어두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만, 내적 어둠에 갇혀있으면 그 나라와 그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철학에 근거하여 그들의 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최고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고,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게 되며, 그것을 보고 마귀가 박수를 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6. 영혼의 빛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 빛은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냥 주어집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임재의 영광스러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적으로 밝은 빛이 들어와 영혼이 그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17.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에 의해 나타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단지 말이나 주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하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은 죄인의 마음에서 죄를 폭로하고 변화와 회심을 일으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18.기도해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어떤 말을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운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심의 햇빛을 만끽하며 경외심으로 찬탄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해야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19.구원 받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통해 의롭다 함을 얻고 거듭났습니다. 의롭다 함, 즉 칭의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두 번째 출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와 중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구조받은 것은 아닙니다.

20.구조 받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적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루마리를 먹어야 합니다.(계10:9) 그리하여 말씀의 진리가 몸 안으로 깊이 스며들어서 적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해야 비로소 우리는 구조를 받은 것입니다.

(정리 -최용우)

이게뭘까

우리나라 말은
너무 재미있어
이게 뭘까를 다른 말로

아리송해
아리까리
알송달송
애매모호
까우똥
깡가밍가
모르간디
알팔팔

영어로 번역만 할 수 있으면
노벨문학상감인데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詩야?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

[덧글]

허성이/ 우리나라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는 이유가 우리 글의 풍부한 정서를 영어나 다른 언어로 도저히 번역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정령들과 천사들의 비교



239. 하늘의 신들, 그 아래 정령, 땅 위에 인간에 대한 정의

아풀레이우스는 “정령들의 본성은 동물이며, 혼은 감정을 따르고, 정신은 이성적이고, 육체는 공기와 같으며, 시간적으로 영원하다”고 말했다.

240. 플로티노스는 죽어 없어지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원한 육체를 가진 정령보다 비참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혼을 이야기 할 때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서 죽어 사라지는 족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멸될 육체를 지닌 인간이 비참한 현생에 영원히 속박되지 않도록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령들은 사악해서 이러한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

241. 인간 혼은 육체에서 떨어진 뒤 정령이 된다는 플라톤 학파의 견해

아풀레이우스는 인간의 혼을 정령이라 말했다. 선행을 많이 하면 죽은 뒤 라레스가 되고, 악행을 많이 하면 레무레스나 라르바이가 되며, 만일 선과 악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면 마네스가 된다고 했다.

242. 플라톤 학파의 인간의 본성과 정령의 본성 구별

아풀레이우스가 “신들의 생명력은 영원한 데 비해, 인간의 생명력은 덧없고 불안정하다.”고 말한 까닭은 생명의 영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신들의 본성은 행복한 상태로 찬양받는 반면, 인간의 본성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는 본성의 완전성을 말하기 위함이다.

243. 정령이 신처럼 행복하지 않고 또 인간처럼 비참하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정령이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가 - 플라톤 학파의 말에 따르면 가장 높은 곳의 신들은 ‘영원한 행복’ 또는 ‘행복의 영원’을 가진다. 그에 비해 가장 낮은 곳의 인간들은 ‘죽음의 비참함’ 혹은 ‘비참한 죽음’이다. 그러므로 중간에 있는 정령들은 ‘비참한 영원’ 또는 ‘영원한 비참함’을 지니게 된다.

-(계속)

침묵(沈默)



1. 침묵(沈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드릴 때’입니다. 성탄절에 많이 부르지만 저는 평소에도 자주 부릅니다.

한국어 가사와는 달리 원곡의 가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모든 것이 잠든 가운데 홀로 깨어난 사람은’ (Stille Nacht Heilige Nacht Alles schläft; einsam wacht)입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 니콜라우스 성당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던 중 성탄 전날 파이프 오르간이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모여 신부는 반주 없이 부를 수 있는 성탄송을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서 성탄절 날 사용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성탄송이 되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어떤 반주도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2천년 전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날. 그날은 너무나 고요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천사 합창단이 찬송을 했지만 그것은 혹 잠든 아기가 깰까 봐 허밍(humming)으로 낮게 부르는 고요하고 웅장한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은 거룩한 찬송이기에 ‘구별된 소리’로 올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찬트(chant)라고 하는데, 찬트에서는 절대로 고음을 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찬트가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영어로 하셨겠습니까 헬라어로 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은 사람의 언어(言語)가 아닙니다. ‘소리’로 창조하셨는데 침묵(沈黙 silence)이라는 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침묵은 무(無)가 아니라 말(言)없는 말입니다. (7412)

2. 침묵과 마음

침묵은 가리얏을 침(沈) -가리얏다, 빠지다, 잠기다, 무언에 마음이 풀리어 헤어나지 못하다, 막히다, 침체하다

묵묵할 묵(默) -묵묵하다, 고요하다, 모독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마음’입니다. 물론 그 마음의 깊이는 들어가 본 사람만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마음의 언저리 얽은 물가에서 놀다가 생을 마감하지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만약 그걸 안다면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 파 내려가는 큰 공사를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요.(아, 쉽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은 침묵(沈黙)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묵언(默言)에서부터 벽을 바라보고 용맹정진(勇猛精進)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용맹정진은 옆구리를 땅에 대지 아니하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만을 제외하고는 앉아서(잠도 앉아서 잔다)하는 방법인데, 사막 교부들이나 절간의 스님들이 용맹정진을 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사람에게 침묵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주먹이가 한뼘이나 나와 있는 사람을 보고 침묵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슬퍼 말을 잊고 멍때리고 있는 사람에게 침묵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맑고 투명한 의식을 지닌 채 묵언하여 자신의 정체를 알아채고 지키는 것입니다. (7413)

3. 침묵의 영성

조금 규모가 큰 부대에는 교회와 성당과 절이 하나씩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일 종교활동 시간에 병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교회로 가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성당으로 가면 너무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니깐 잠을 잘 수가 없고, 절로 가면 잠은 푹 잘 수가 있는데 초코파이를 안 준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가볍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독교는 그렇게 가볍고 시끄럽고 요란한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를 공부해 보면 수많은 영성의 대가들이 기독교는 자기죽임, 자아부정, 회개, 회심, 순종, 순교, 고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빌 3:10-11) 한다고 했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고전15:31).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그것은 고독과 적막함 가운데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침묵!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신음하는 현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깊은 침묵 속에 잠길 때’(putting myself to silence) 세미하게 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욥4:16) (7414)

4.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제가 젊었을 때 신학공부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붙잡고 몸부림 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였습니다.

기독교 신문사에서 잠시 일하며 기자라고 유명한 기독교 인사들 제법 만났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보다 허당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주제로 원고를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자네가 쓰고 내 이름 붙여.” 그래서 유명인의 글은 많은 부분 기자나 비서의 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나 비주류에 속한 분들 가운데 진정한 실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고민을 풀기 위해 성경을 유심히 살피다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도, 바울도 모두 광야로 갔습니다.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곧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던 진정한 성소였다’고 시편에 노래합니다.

저도 광야로 나가고 싶어서 ‘광야’를 연구해 보니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는 없고 ‘들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꽃편지(광야편지)>라는 쪽지가 199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들꽃편지>에는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

고 싶습니다.’라는 꼬리가 지금까지 붙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충청도 계룡산과 금강 사이에 있는 ‘용포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매일 ‘들판에서 외치는 들소리’〈들꽃편지〉를 띄우며 살고 있습니다. (7415)

5. 광야의 고독

참으로 시끄럽고 소란한 것에 익숙한 시대에 스스로의 힘으로 ‘침묵’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신을 침묵케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때때로 강제로 광야로 내몰아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침묵’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성령님께서 강제로 광야로 내모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막1:12) 모세도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숨어 있었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그 광야에서 엄청난 양의 시편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 곳은 어떤 크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의지할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마르고 황폐한 광야’입니다.(시63:1-2)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억지로든 어쩔 수 없어서든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목회자들도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신학적인 지식은 조금 부족했을지라도 사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2 - 3세대 목회자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많이 하기에 ‘지적인 능력’은 선배 목회자들보다 탁월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침묵도 모르고 광야에서 절체절명의 기도를 고독하게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를 뽑으며 밤새워 기도했던 기도원들도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습니다.(7416)

6. 역경의 침묵

구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로 시작합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태초’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창조 이후의 시간보다도 더 길고 긴 역경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엔 깊고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빛은 그 침묵과 어둠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신비로운 시간 ‘침묵’은 알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은밀히 숨겨져 있습

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침묵의 한복판에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주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암모나스는 “침묵의 힘은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치료하는지, 또한 침묵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디선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이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침묵을 낫설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그 시끄러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10초 동안만 소리가 나가지 않으면 ‘방송사고’라 합니다. 현대인들은 10초 동안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성가들은 ‘저 두려움의 산 너머에 진실로 따뜻한 침묵의 양지가 있다’고 합니다. 침묵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침묵’을 가리켜 ‘빛나는 밤’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7418)

7. 엄청난 소리

오래전 서울에 있는 아무개 수도원에서 관상기도를 배웠던 때가 생각납니다. 전국에 유명한 기도원은 거의 가 보았지만 수도원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공부하는 무조건 1시간 침묵기도를 하고 시작하며, 수업을 마칠 때도 1시간 침묵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첫날,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무조건 가부좌로 앉아서 눈을 감고 1시간 ‘침묵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이나 교회처럼 기도할 때 찬송가 반주가 울려 퍼지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눈을 감고 그냥 앉아서 1시간 후 끝났다는 죽비가 딱딱 울리기 전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 1층에 있는 카센터에서 땅땅 망치질 소리, 드릴 소리, 말소리, 자동차 소리, 빵빵 소리, 시장 소리, 개소리, 물소리, 우편함 딸그락거리는 소리, 오토바이 소리, 새소리, 밥통 김빠지는 소리, 비행기 소리, 멀리 전철 소리, 알 수 없는 웅웅 소리, 사람들 바스락거리는 소리..... 가만히 눈을 감고 들어보니 정말 세상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내 귀가 꼭 필요한 소리만 골라서 뇌로 보내지 않는다면 인간의 머리는 소리로 꽉 차서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첫날 첫 ‘침묵기도’는 기도는 커녕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그 소리들과 싸우다가 끝났습니다. 눈 감고 있는 1시간이 그렇게 길고 수많은 사연이 깃든 긴 시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침묵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내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419)

8. 두 가지 소리

오래 전 서울에 있는 아무개 수도원에서 관상기도를 배웠던 때가 생각납니다. 첫 날 첫 ‘한시간 침묵기도(?)’를 마치고 나서 나의 기대는 외장창 깨졌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고 찾다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수도원에서 처음 경험한 ‘침묵기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든 침묵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며, 마음의 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침묵에서 가장 기초적인 첫 단계는 소리를 극복하는 단계입니다.

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음과 인공음입니다. 바람 소리, 새소리, 물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와 같은 자연에서 나는 소리는 심령을 굽지 않기 때문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기계 소리는 심령을 굽어서 상처를 내기 때문에 침묵을 할 때 심하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묵언수도를 하는 절이나 수도원이 한적한 곳이나 깊은 산중에 있는 이유도 상처를 내는 잡다한 인공음을 피해서 소리가 없는 곳이나 자연음이 들리는 곳으로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실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피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막6:30, 눅5:16, 눅4:42)

일반적으로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은 인간에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침묵의 시간,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고요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일을 뒤로 물리시고 때때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7420)

9. 줄임

오래전 서울에 있는 아무개 수도원에서 관상기도를 배웠던 때가 생각합니다. 1시간을 전디는(?) 고문 같은 침묵기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소리’는 금방 극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참으로 신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코스트코에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바글바글 와글와글 잠시만 헛눈을 팔면 같이 간 일행을 놓쳐버립니다. 고소한 빵의 향기에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보” 저 멀리서 아내가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주변에 ‘여보’들이 수 백명은 둘러쌓여 있었는데 제 귀는 아내가 부르는 ‘여보’ 소리를 정확히 구별하여 듣고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귀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 꼭 필요한 소리만 골라 뇌에 전달하고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전파 중에 필요한 주

파수만 잡아내어 방송을 들려주는 라디오와 같은 기능입니다.

‘침묵기도’를 계속하면 어느 순간 수많은 소리들이 저 멀리 아스라이 사라져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귀와 의식이 별로 필요 없는 소리들을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지요. 소리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졸음’과 ‘생각(분심)’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침묵기도’를 할 때, 가끔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어느 때는 ‘쿵!’ 캄캄 졸다가 쓰러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졸음이 몰려올 때는 조용히 자세를 바꾸거나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래도 졸리면 조용히 일어서서 두 발을 벌리고 잠깐 서 있다가 앉으면 됩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면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릴 수 있으니 짧게 서 있다가 바로 앉아야 합니다. ‘침묵기도’를 해 보면 그게 참 쉽지 않음을 금방 알게 됩니다. (7421)

10. 두 가지 ^{졸음} 졸음

침묵기도를 할 때 졸음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 피곤해서 졸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영은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구나.”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래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낮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너무 졸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막14:37-40) 몸이 피곤할 때는 천하장사라도 눈꺼풀 하나도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기도만 시작하면 졸음이 몰려오고 기도를 멈추면 금방 정신이 말뚱말뚱해지는 것은 육신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시작하면 조는 것도 같은 증상입니다. 육적 졸음은 영이 약하고 육신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적 기도 단계에 들어갈 때 기도하는 사람이 ‘비몽사몽(trance)’이라는 졸음과 비슷한 상태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율바 성에서 기도할 때 이런 비몽사몽을 경험했습니다.(행11:5)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보매(행22:17)’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욥33:15) 비몽사몽(trance)을 ‘황홀경’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면 이 같은 혼수상태에서 꿈과 환상이라는 수단으로 계시를 받게 됩니다. (7421) ©최용우



밥그릇 국그릇 (사진:최용우)

만키로미터를 걸었더니

핸드폰 LG헬스 어플로 재보았더니 작년 1년 동안 2354km를 걸었다. 한달 평균 196km 하루 6.5km 걸음 수는 2923513보를 걸었다. 365로 나누었더니 하루 8009보이다. 아니, 하루에 8천보를 걸으라고 했는데, 8걸음씩이나 더 걷다니!

참 좋은 세상이다. 그저 핸드폰을 들고 걷기만 했는데도 모든 데이터를 다 기록해주고 통계까지 딱딱 나오다니... 여기엔 핸드폰 없이 걸은 기록은 빠져있다. 올해는 한달 평균 200km 걸음수는 300만보를 달성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시작했지만 뭐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1년에 2천km를 5년 동안 걸어서 1만km 걸은 다음 <1만키로미터를 걸었더니>라는 책을 쓰려고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올해로 3년차 접어들었다.

부드러운 것

사람들은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도 부드러운 빵이다. 부드러운 빵이 입속에서 녹을 때면 잠시 환상에 빠진다. 구름 위를 걷는듯한 부드러운 마음의 감촉을 느낀다.

뭔가 거칠은 척 하고 썬 척 주먹 자랑하는 남자들과 빨자랑 하는 슷컷들은 사실은 여자들이나 암컷의 '부드러움'을 차지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다. 무조건 성공한다는 '광고 3B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Baby)와 미녀(beauty) 동물(beast)을 모델로 쓰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그 3B의 특징은 '부드러움'이다.

남자든 여자든 마음 밑바탕에는 부드러움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마트에 갔더니 마치 죽부인처럼 잠잘 때 안고 잔다는 '보들이' 인형이 잔뜩 세워져 있었다. 아내가 말리지 않았으면 하마터면 한 마리 덤석 안고 올 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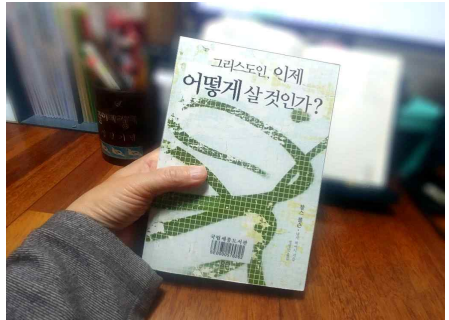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종도서관에 갔다가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찰스 콜슨의 책이 눈에 들어와 모셔왔다. 찰스 콜슨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쓴 분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찰스 콜슨이라는 이름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책 제목이 나중에 보였다.

나도 사람들이 '최용우'라는 이름 때문에 책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음 좋겠다. 뭔가 최용우를 대표할 만한 '거대한' 베스트셀러가 한 권 터져야 할텐데... 1000페이지가 넘는 '거대한' 책만 만들고 있다. 아직은 좀 더 분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는 1999년에 쓰여진 책이고 2002년에 한글로 번역되었고 2019년에 14쇄를 찍었으니 오랫동안 꾸준히 팔려나가는 책이다. 나도 그런 책을 쓰고 싶다. <최용우, 그런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좀 더 분발하자!



봄동

대평 오일장에 갔더니 ‘냉이, 달래, 봄동’을 팔고 있었고 곧 돈나물, 두릅, 쑥, 씬바귀 같은 나물도 나올 것 같다. 봄동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우와~~!! 봄동이닷!”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더니 아내가 별 반응이 없다.(음 살 마음이 없나 보다.) 사진이나 찍자.



하여 먹음직스러운 봄동은 사진으로나마 담아왔다.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아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핸드폰 속의 사진이다. 그래도 그런 마누라랑 오순도순 안 싸우고 잘 살아서 감사!

봄동은 초겨울에 씨를 뿌려 겨울부터 봄까지 거두기도 하고, 가을에 배추를 뽑을 때 좀 부실한 놈들은 그냥 두면 겨울을 지나며 저절로 봄동이 되기도 한다.

봄동은 잎이 두껍고 뽀뽀하지만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있어 싱싱한 채소가 그리운 겨울 식단을 풍성하게 해준다.

바다의 시작

오! 누구일까? 길가 배수구의 입구에 ‘바다의 시작’이라 쓴 저 시적 감성이 풍성한 사람은... 페이스북 한희철 목사님 담벼락에서 이 사진을 보고 눈이 번쩍!

아마도 담배꽂초를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담배꽂초를 버리지 마세요’ 대신 고민을 하다가 멋진 시(詩)가 떠올랐나 보다. 그렇지 바로 저기에서부터 바다가 시작된다. 그래서 담배꽂초를 버리면 바다로 흘러갈 것이고..



만약 공무원의 책상에서 아무 고민 없이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담배꽂초 투기 금지 벌금 100만원> 이런 ‘경고성’ 문구를 썼을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저 문구를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이것이 인문학적 감수성이다. 인문학은 우리의 살림살이를 훨씬 부드럽게 해 준다.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593회 덕유산 향적봉(1614m) 중봉(1594m)

덕유산 향적봉-중봉에 올랐다. 덕유산은 남한에서 4번째로 높은 산이고 봉우리로 따지면 향적봉은 12번째, 중봉은 13번째 높은 산이다.

집에서 덕유산까지 100km 1시간 30분 거리이다. 아침 기도회 끝나고 바로 달렸더니 11시쯤에 덕유산리조트 도착. 곤도라를 타고 설천봉까지 간 다음 향적봉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상 인증 사진을 찍는데 평일인데도 30분을 줄 서서 기다렸다.

내친김에 중봉까지 달렸다. 중봉에도 사람들이 많다. 나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앉아 30분쯤 세상을 조용히 둘러보며 침묵기도를 하고 가지고 간 뜨거운 물과 머들렌 빵으로 요기를 했다.

참 좋은 날씨에 확 트이는 풍경을 보니 마음이 땡 풀린 것 같다. 그렇게 忙中取閑(망중유한)을 즐기고 돌아왔다. 2023.2.3



▲제594회 식장산(598m대전)

아내와 함께 식장산 다녀왔다. 그러니까 19년 전 제1회 등산이 바로 '식장산'이었다. 대전소망교회 김대철 목사님 가족과 우리 가족 모두 8명이 세천공원을 들머리로 옥천봉-독수리봉-식장산을 돌아 내려와서 감자탕을 먹었다.

문득 제1회부터 올라갔던 산들을 다시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식장산 간다고 했더니 막판에 아내가 따라붙었다. 세천저수지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려던 계획을 바꿔 정상까지 나 있는 임도를 타고 편하게 올라갔다가 편하게 내려왔...

지만, 아내가 종아리에 타조알 생겼다고 힘들어한다. “오랫만에 산을 타서 그래.”

판암동을 차로 돌아보니 그때 그 '감자탕'집이 있었다. 주인도 그때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어계인을 하는 것, 들어가서 뼈침을 먹고 집에 왔다. 2023.2.9



▲제595회 국사봉(319m) 보은회남면 시은리 어부동

꽃봉(284m)-국사봉(319m) 다녀왔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에서 산에 올라 꽃봉을 거쳐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국사봉7 인증하고 대전시 동구 오동 방향으로 내려와 대청호수길을 걸어 방아실 차 있는 곳까지 와서 차를 회수해 집에 오니 11km를 걸었고 4시간 걸렸다.

대청호오백리길 제6구간에 해당하고 산길은 양쪽으로 대청호수를 보면서 걷는 평평한 산길이었으며 다만 막판 국사봉을 올라가는 길은 로프를 잡고 기어 올라가야 할 만큼 급경사였다.

산에서 내려와 대전행 마을버스를 타려고 생각했는데 작년부턴 대전의 모든 버스는 '교통카드'로만 차를 탈 수가 있다며 현금은 안 받는다고 해서 할 수 없이 5km 정도를 걸어야 했다. 그래도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걸어왔다. 2023.2.27

▲제596회 비학산274 (일출봉252m) 2023.2.26.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우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춘분-해당화가 곱게 피는 날

옛 선인(先人)들은 자연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봄에 각 절기마다 5일 간격으로 피는 꽃을 24계화신평(二十四番花信風)이라 했습니다. 소한에는 매화 동백 수선화, 대한에는 서향 난 춘란, 입춘에는 영춘화 앵도 개나리, 우수에는 유채 살구 자두, 경칩에는 복숭아 산앵두 장미, 춘분에는 해당화 배꽃 자목련, 청명에는 오동 보리 버들, 곡우에는 모란 넝쿨장미 멀구슬이 핀다 했는데, 지역마다 꽃피는 시기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세종시 금남면에서 2월 보이는 꽃은 봄까지 복수초 별꽃 냉이 홍매 애기동백, 3월에 보이는 꽃은 바람꽃 노루귀 꿩의바람 현호색 매화 보리뱅이 살구 광대나물 제비꽃 수선화 길마가지 봄맞이꽃 민들레 썸바귀 영춘화 개나리 생강나무 산수유 정도입니다. 4월에는 진달래 조팝 미나리냉이 창포 층층나무 조개나물 개구리발톱 반디지치 율판나물 애기똥풀 자주괴불주머니 털조장나무 각시붓꽃 목련 자목련 병꽃 광대수영... 같은 꽃들이 핍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어느날 <세상에서가장작은교회>를 짓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작은교회'에 관심이 생겨 검색을 해보니 우리집에서 40분 거리인 충남 논산에 '대나무숲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어서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김종범 사진작가가 사지를 찍기 위해 집 뒤 대나무 숲속에 고즈넉하게 지어놓은 미니교회이며,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들꽃편지10권 천인국꽃호> 504쪽 21000원 -3월13일 출간

67권 <들꽃편지9권 분꽃호> 510쪽 21100원 -2월8일 출간

66권 <들꽃편지8권 영경귀꽃호> 510쪽 21100원 -1월11일 출간

65권 <들꽃편지7권 민들레호> 510쪽 21100원 -12월14일 출간

64권 <들꽃편지6권 금계국꽃호> 506쪽 21000원 -11월15일 발행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우유'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61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3.2월 재정결산

2023년 2월(1-28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상식 김정순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진우 이인숙 임대근 임대근 장기갑 정효숙 조정옥
지경희 최상복 최영미 한주환 1004

새벽기도 성실교회 안디옥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모두 30분이 1,120,000원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3.3.18.일까지 7474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68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흠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
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나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새로 나온 책

제10권 합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10권 천인국꽃호
최용우 편집 504쪽 21,0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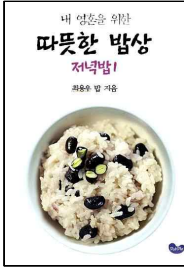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그동안 펴낸 〈들꽃편지〉를 약 500쪽 분량 정도로 합본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들꽃편지 제10권〉은 2006.1월 제408호부터 2007.1월 제455호까지 1년 동안 발행한 48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 산림박물관 옆에 있는 〈산골마을〉에서 6개월간의 짧은 협력사역을 마치고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쑥티마을에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인 아이들이 너무 먼 통학 거리에 지쳐서 힘들어하기에 일정 기간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로 하고 작은 면소재지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몇몇 목회자들이 모이는 목요기도회 모임을 인도하였고, 기독교 피정의집 사역을 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폐교를 무수히 찾아다녔으나 적당한 장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만들어 전국에 띄웠던 주간〈들꽃편지〉1년분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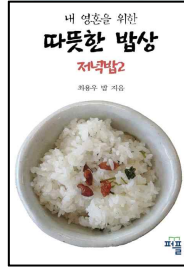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용우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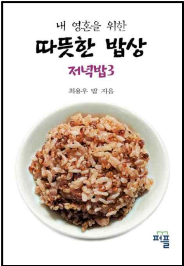
따뜻한 밥상-저녁밥1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따라 신학적 교리적 조미료 치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읽은 쉬운 말씀묵상 마태복음-마가복음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퍼플



따뜻한 밥상-저녁밥2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어로 묵상하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했습니다. 누기복음-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17,300원 398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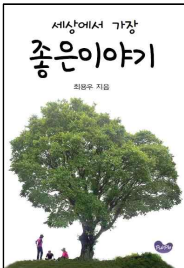
따뜻한 밥상-저녁밥3

밥은 스스로 떠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알기만 해도 말씀의 밥을 자신의 말로 만들어서 자신의 고백으로 '아멘'을 할 수 있게 묵상하였습니다. 사도행전-요한계시록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7,000원 398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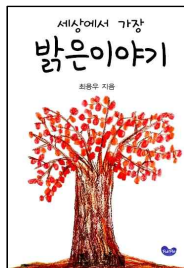
겨울 묵상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13년 동안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기독교바탕화면'을 만들었던 사진 중에서 겨울 사진 200장을 골라 묵상글 글과 함께 편집하였습니다.
13,900원 218쪽(컬러)퍼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별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호-1019호까지 4년 분량 1019편의 좋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4,000원 722쪽 퍼플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별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020호-1979호까지 5년분 960편 밝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3,900원 720쪽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50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